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공성의 세계에서

순수자각의 창을 휘둘러라.

그 견해는 어떤 것도 결림이 없는 창이니라.

당신의 견해는 하늘만큼이나 높고 광대할 것입니다. '순수자각' 이 마음이 비어 있는 본성 속에 한 번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나쁜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마음의 장식이 됩니다. 견해의 체득, 이 변함없는 상태는 무언가 존재한다거나 남아 있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은 생각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노인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듯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은 순수의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허공에 검은 휘드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은 순수자각의 장난입니다. 순수의식을 깨닫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실은 생각이 생겨나고 남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생각은 더 이상 마음의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생각을 쫓아갈 때 마치 강아지가 막대기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막대기를 던질 때마다 그것을 잡으려 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게되면 각각의 생각들이 깨어 있음이라는 공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사자처럼 막대기를 쫓아가기보다 막대기를 던진 이를 향해 돌아서지요. 막대기를 던지 바로 그 사 람에게요.

창조된 것이 아닌 '마음의 본성'이란 요새를 차지하려면 생각의 근원과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망상을 키우는 대신, 공성을 깨닫는다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각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깨달은 공성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만해, 아프리카 학교로 '우뚝'

월주 스님, 만해대상 상금 기부해 케냐에 학교 건립

지구촌 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이 상금을 기부 제 3세계 지구촌 이웃 돕기를 이어나가 눈길을 끈다. 지구촌 공생회는 4월 30일 케냐 남부 카지아도 지역의 올마피테트 마을에서 '만해 초등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구촌 공생회는 4월 30일 케냐 남부 카지아도 지역의 올마피테트 마을에서 '만해 초등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 통학만 3시간 걸리는 오지
- 인제 양성 위해 건립 발원
- 민세상 상금도 모두 기부해
- 농업 저수지 만들어 '귀감'

월주 스님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이 하루 3시간 거리를 걸어서 학교를 오가고 있다. 이 길은 야생동물이 지나다녀 위험한 지역이다. 근처에 있는 학교를 마음 편하게 다니며 케냐를 이끌어갈 인재로 커가기를 바란다" 전했다.

월주 스님은 마사이족 약 260가구가 살고 있는 올마피테트 마을 학생들을 위해

지난 2012년 16회 만해대상 수상 상금 5000만원을 초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내놓았다. 이번에 세워질 학교는 교실 9칸과 교무실, 화장실 등을 갖추었다. 총비용 1억 2000만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후원자들의 도움을 얻었다.

한편, 월주 스님은 4월 29일 카지아도 지역 인키니 마을의 농장에서 건립한 민세지(池) 명관식도 거행했다. 이 또한 민족운동가 민세재를 기리기 위한 상인 제1회 민세상 수상금 2천만원을 스님

이 희사한 것으로 민세지는 여기서 따온 이름이다. 이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짓고 사는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장소다. 민세지는 가로세로 각 40m, 깊이 5.5m로 물이 가득 차면 약 8800t에 이른다.

이밖에도 지구촌 공생회는 이번 케냐 방문 일정 동안 엔요노르 영화 초등학교 운영 상황 검토와 도서관 명관식을 진행했고, 올레나라우 핸드프린트를 찍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삼장·염불원 첫 사례 봉선사염불원 문 연다

조계종 교육원, 지정 승인

지난 4월 공포된 삼장원·염불원법에 근거한 첫 수행기관이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에 처음으로 지정 승인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웅)은 5월 2일 제135차 교육원 회의를 열고 봉선사에서 운영할 '봉선사염불원' 설립을 공식 승인했다.

올해 하안거부터 운영될 '봉선사 염불원'은 삼장원·염불원법과 시행령의 거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정토삼부경과 <반주삼매경> 등 정토사상의 근본이 되는 경전을 연찬하게 된다. 또한 참법수행과 염불선 등도 함께 병행된다.

'봉선사 염불원'에 입방해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은 2013년 전국 사찰 결계록에 등재돼 안거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번 지정에 대해 봉선사는 "신라시대 이래로 내려오던 만일염불회 전통을 복원하겠다"며 "안거 기간동안 공양의례, 참회의례, 송경의례, 참선의례 등을 실시해 염불행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염불공동체 수행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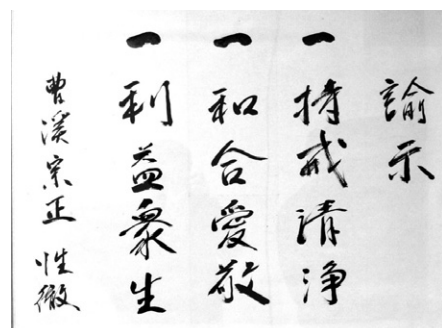
성철 스님 친필 유시 진품 찾았다

서울경찰청, 절도 혐의자 검거 18년만에 회수...처벌 수위 낮아 지난해 경매...진위논란 '덜미'

2012년 3월 한 미술경매회사에 조계종 6대 종정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라는 기록물 한 점이 미술품 경매에 올라왔다. 불교계 안팎으로 진위 논란이 있었지만, 이 유시는 결국 2100만원이라는 고가에 낙찰이 됐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가 도난품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친필 유시도 진품임이 확인됐다.

서울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철 스님이 조계종 6대 종정으로 취임하면서 종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유시를 절취해 유통한 피의자 이 모씨 등 2명을 절도 등의 혐의 검거하고 피해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성철 스님이 1994년 11월 4일 열반한 이듬해 1월 '우리시대의 부처 성철 스님'이라는 책자 발행을 위한 유품활영을 의뢰받은 이 모씨는 이를 활영하고 유시만을 빼돌려 절취했다.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자 미술품경매회사 마이아트



조계종 6대 종정이자 근현대 대표 선지식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 유품 도록 촬영 당시 보조 사진사가 의도적으로 절취해 가지고 있다가 경매 전문회사에 1천만원을 주고 넘겼다. 두 피의자 모두 절도와 장물 취득 혐의로 입건됐다.

옥선의 실질 운영자인 공 모씨에게 찾아가 1000만 원에 유시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공 모씨는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도 매수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유시를 절취한 이 모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근거가 없으며, 고의로 유시를 취득한 공 모씨는 범금형도로 처벌될 전망이다.

이번에 회수된 유시는 성철 스님이 1981년 조계종 6대 종정에 취임하면서 친

필로 내린 조계종의 기록유산으로, 취임 당시 스님은 두 점을 작성해 한 점은 총무원에, 다른 한 점은 백련암에 두었다. 그러나 총무원으로 보낸 유시 원본은 행방을 알 수 없어 현재는 회수된 유시가 유일한 진품 원본이다.

18년만에 은사 성철 스님의 친필 유시 원본을 찾은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유시가 잘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 "스님을 선양하는 사람으로서 종도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유시를 잘 모시고 올 것이며, 향후 유품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현대 선지식들의 기록물을 포함한 불교계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환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일반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면 오래되고 희귀성이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둔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근현대 중요 인물에 대한 유품, 유적 등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교구종회 내

재가자 참여 제안

조계종 쇄신위 8차 회의서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이하 쇄신위)가 교구종회에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하는 '교구종회 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채택했다.

쇄신위는 4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교구종회 개선을 위한 제안서 의결의 건' 등을 논의하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쇄신위원 35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쇄신위가 제안한 '교구종회 개선안'은 교구종회에 재가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구종회는 분사주지, 부주지, 직전 전임 분사주지, 교육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20% 정도의 비구니스님, 관할 교구신도회장을 비롯한 10% 정도의 재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쇄신위는 교구종회가 교구 집행부의 견제와 협조는 물론 지역불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것도 주문했다.

신종일 기자

인덕스님의 공진보원

5월 가정의달 부모님 선물용으로 최고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들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10세트 이상 대량주문시 특별우대 합니다. 상담연락 주세요.

인덕스님의 공진보원은 그 동안 인터넷카페로만 신도분들과 조금씩 만들어 나누던 공진보원을 이번에 한아바이오텍과 제휴하여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상의 재료와 정성과 마음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인덕 합장



구입문의 및 상담전화 : 070-7374-4650
농협 : 302-0496-4978-41 한아바이오텍



내용량 250g(5g×50환) ₩ 250,000원

제조원 : 한아바이오텍(부산 진구 제 353호)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국번없이 1399
• 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교환, 환불 및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재료 : 녹용상대(러시아) 15.1%, 당귀(국산) 15.1%, 산수유(국산) 15.1%, 홍삼(국산) 7.5%, 숙지황(국산), 사인(중국산), 오미자(국산), 꿀(국산), 침향(인도네시아산)